

이 책을 소개합니다

주시경 선생님은 ‘나라말과 글을 잃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말 모으기 대작전 말모이》는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금지당하던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우리말과 글을 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동화는 대부분 인물에 초점을 맞추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우리말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매력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말과 글을 소비하고 있는 지금 우리 모습을 역사의 거울에 비추어 보며, 우리말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제안하며……

‘말모이 작전’은 우리말 대신 일본말을, 한글 이름 대신 일본 이름을 써야 했던 일제 강점기 시절에 펼친 독립운동으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참여해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키고자 애썼습니다. 잊혀 가는 우리말을 하나씩 모아서 기록해 두는 방식이었으며, 말모이 작전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탄압으로 목숨을 잃거나 감옥으로 끌려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이들의 노고로, 독립 후 《조선말 큰사전》 1권 편찬이라는 커다란 결실로 이어지게 된답니다.

《우리말 모으기 대작전 말모이》는 말모이 작전에 직접 참여한 세 어린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각자 다른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나라를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친 거지요. 이들이 평범한 생활 속에서 순우리말을 찾아내는 기상천외한 방법에 웃음이 터지면서도, 우리말을 지킨다는 게 신변의 위협을 감수할 만큼 중요한 일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우리말 모으기 대작전 말모이》는 4~6학년 학생들에게 모두 적합하지만 일제 강점기에 대해 배우는 6학년 1학기에 활용하길 추천합니다. 책 속에 담겨진 여러 가지 시대 배경이 우리나라 근·현대의 전반적인 모습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10차시 수업 계획안

단계	활동 내용	차시
독서 준비	책 내용 짐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과 관련된 사건·인물·장소 떠올려 보기 책 표지 속 낱말 살펴보고 뜻 예상하기 	1차시
독서 활동	[1~4장] 읽고 활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답하기 등장인물 관계도 그리기 	2차시
	[5~10장] 읽고 활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시경 선생님은 누구일까? 우리말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 우리들의 말모이 대작전! 	2차시
	말모이 작전 자세히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 속에서 일제 강점기를 나타내는 단어나 사건 찾기 조선어 학회와 말모이 작전 알아보기 	1차시
	[11~15장] 읽고 활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핫 시팅으로 등장인물 인터뷰하기 만약에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비밀 작전을 세운다면? 	2차시
독서 후	이름 모를 수많은 별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소개하기 1930년대 어느 하루 상상하며 역사 일기 쓰기 	1차시
	‘나만의 말모이 사전’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가 사랑한 우리말’을 주제로 글·그림 창작하기 	1차시

1차시: 책 내용 짐작하기

1. 여러분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마인드맵으로 나타내 봅시다.



수업에 도움이 되는 팁 >>> 시대 배경을 떠올리는 마인드맵 활동을 통해 '항일 투쟁기'라는 역사적 사실에 흥미를 일으켜 주세요. 그런 뒤에, 영화 <말모이> 예고편을 보며 앞으로 책 속에서 만날 말모이 작전에 대해 알아본다면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기가 한결 수월할 것입니다.

2. 책 표지 속 낱말을 살펴보고 뜻을 예상한 다음,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무슨 뜻일까요?	다른 친구들이 생각한 뜻
말모이		
짜름하다		
매얼음		
된바람		
한내		
다숨		
앞차다		
푸새		

2~3차시 : [1~4장] 읽고 활동하기

1. 1장 ‘수상한 남자’에서 4장 ‘그깃 천황 폐하가 뭐라고!’까지 읽으면서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 생생 질문 : 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 곰곰 질문 :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고 답할 수 있는 질문
- 라면 질문 : 만약 내가 등장인물이라면 어떻게 할지 상상해 볼 수 있는 질문

	질문 유형 (생생, 곰곰, 라면 질문)	질문	다른 친구들의 대답
1	생생 질문	예시) 아이들은 궁성 요배 시간에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2	곰곰 질문	예시)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3	라면 질문	예시) 만약 나라면 만식이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4			
5			
6			

2. 등장인물 관계도를 만들어 봅시다. (다양한 기호를 활용해 표현해 보세요.)



아버지

• 내가 알고 있는 인물에 대한 정보



이한술

• 내가 알고 있는 인물에 대한 정보



강석태

• 내가 알고 있는 인물에 대한 정보



정만식

• 내가 알고 있는 인물에 대한 정보

수업에 도움이 되는 팁 >>> 화살표는 물론이고, 다양한 도형·색상·기호를 추가해 관계를 표현해 보게 합니다. 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며 성격을 추론해도 좋고, 글 속에서 알 수 있는 갈등 관계를 표현해도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올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책을 읽어 나가면서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목해 보고, 변화된 관계를 다시 반영해 보아도 좋겠습니다.

4~5차시 : [5~10장] 읽고 활동하기

1. 참고 영상을 보고 주시경 선생님은 어떤 분인지 정리해 봅시다.

참고 영상_ NATV 국회방송 <한국의 정신> 7회 주시경 | EBS <역사가 술술> 우리글을 지킨 한글 학자, 주시경 | MBC <박성훈, 주시경을 기억하여 기록하다>

이전에 알고 있던 사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예시) • 별명 : 주보따리 • 우리말을 연구하는 학자

2.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말을 다듬고 지키는 건 왜 중요했을까요? 자신의 말로 풀어 써 봅시다.

“주시경 선생님은 이 책에 이렇게 썼어. ‘나무가 자라는 것은 하늘이 하는 일이고, 그 나무를 가꾸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말을 다듬어서 바르게 말하고 적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이 참 좋다.”

그게 대체 우리나라를 되찾을 방법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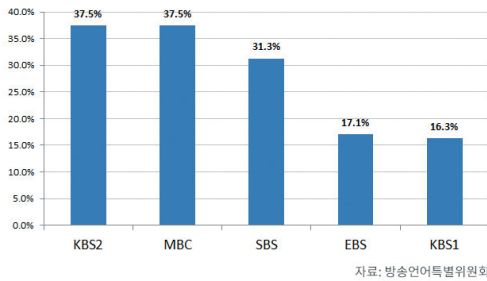
“주시경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라말과 글을 잃으면 민족이 망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려고 어디든 마다 앓고 가셨던 거야. 그래서 말인데…….”

(본문 54~5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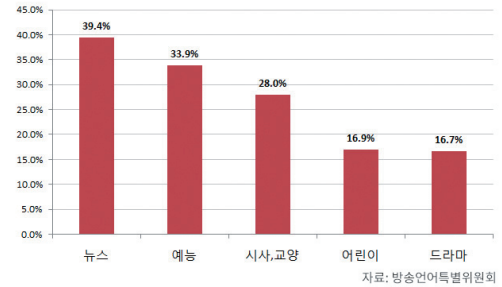
수업에 도움이 되는 팁 ▶▶▶ 조선어 학회 사건이나 말모이 작전에 대해 배우기 전에, 학생들도 한 번쯤 들어 보았을 법한 역사 인물인 ‘주시경’이 그의 삶 속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했는지 알아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제 강점기에 우리말을 지키는 운동이 왜 필요했는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우리들의 말모이 대작전을 펼쳐 봅시다.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팩트, 셰프, 콘텐츠, 캠페인 등 외래어와 외국어가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래 도표와 영상을 참고해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 내가 좋아하는 우리말이나 이제는 잘 쓰지 않는 우리말을 찾아서 친구들에게 소개해 봅시다.

지상파 TV 외래어·외국어 사용 비율(2015년)



장르별 외래어·외국어 사용 비율(2015년)



세계화 시대, 외래어·외국어 사용 이대로 괜찮습니까?(조선일보, 2018년 10월 9일)



참고 영상_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공익 광고〉(2018년)

우리말	무슨 뜻일까요?

수업에 도움이 되는 팁 ▶▶ 학생들이 작성한 우리말 목록은 10차시 ‘나만의 말모이 사전’ 만들기 활동에 활용합니다.

6차시 : 말모이 작전 자세히 알아보기

1. 책 속에서 일제 강점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나 사건을 찾아봅시다.

예시) 조센징, 일본 형사, 일본 지주, 조선말, 식민 지배, 수사, 일본 황궁, 천황 폐하, 궁성 요배, 황국 신민, 타다요시, 황국 신민 서사, 독립, 조선인 형사, 불령선인…….

수업에 도움이 되는 팁 ▶▶▶ 책 속에 등장하는 단어의 의미를 먼저 이해한 다음 배경 역사를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1930년대 일제 식민 통치의 목표가 ‘민족 정체성 말살’이라는 걸 이해하면, 우리말을 없애고 우리 이름을 바꾸는 정책(창씨개명)들이 이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참고 자료를 통해 조선어 학회가 벌인 ‘말모이 작전’에 대해 알아보고 빈 칸을 채워 봅시다.

참고 자료_ 부록 《우리말 모으기 대작전 말모이》 제대로 읽기 | EBS <지식채널e> 말모이 대작전

조선어 학회란?	예시) 일제의 탄압 속에서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하고 널리 알리는 데 힘쓴 단체.
말모이 작전 1단계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맞춤법 을 통일합시다! •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발표.
말모이 작전 2단계	지역별로 사용하는 표현이 다르니 표준어 를 정해서 발표해야 합니다! • 1936년 ‘조선어 표준어 사전안’ 발표.
말모이 작전 3단계	“이곳 방언을 규칙 없이 두어 말 적어 드립니다. 백분지 일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 뒤에도 힘 있는 데까지 이어 적어 드리려 합니다.” • 김여진, 길주 성진 지방 방언 조사 투고자 : 방언(사투리)을 조사하기 위해 한글 이라는 잡지에 광고를 실음.
조선어 학회 사건	예시) 1942년, 기차에서 우리말을 썼다고 여학생 한 명을 붙잡아 간 뒤 그 여학생의 일기장을 꼬투리 삼아 조선어 학회 회원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사건.
말모이 작전은 성공했을까?	• 1945년 경성역 창고에서 우연히 말모이 원고를 발견함. • 1947년 조선말큰사전 1권이 출간되고, 1957년까지 모두 6권의 우리말 사전이 완성됨.

7~8차시: [11~15장] 읽고 활동하기

1. 핫 시팅 방식의 역할극을 하면서 등장인물을 인터뷰해 봅시다.

- 1) 이야기 속 등장인물 배역을 하나씩 나누어 갖습니다. (학생 전원 참가)
- 2) 독자 또는 내가 맡은 배역의 입장에서 다른 등장인물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세 가지씩 포스트잇에 적어 봅니다. (선택 가능)
- 3) 인터뷰당할 주인공 배역 학생이 교실 앞 의자에 앉습니다.
- 4) 나머지 학생들은 미리 준비한 사전 질문지를 참고해 의자에 앉은 학생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수업에 도움이 되는 팁 ▶▶ 주인공이 된 학생은 인물의 다양한 감정을 직접 표현하면서, 또 나머지 학생들은 가상 인터뷰에 참여하면서 책 속 인물과 상황을 깊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가 자칫 생김으로 빠질 수 있으니 학생들이 진지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의 적당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모형 마이크를 준비하면 학생들의 몰입도가 높아집니다.

2. 우리가 만약 일제 강점기를 살고 있다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비밀 작전을 세워 봅시다.

비밀 작전명				
작전 소개				
역할	이름	이름	이름	이름
비밀 작전 관련 홍보물 만들기				
추가 회원 명단				

9차시 : 이름 모를 수많은 별들

1.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말모이 대작전에 참여했던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처럼 느껴졌다.'는 말에 공감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여러 분야의 독립운동가를 함께 알아봅니다. 내가 소개하고 싶은 독립운동가에 대해 조사한 뒤, 해당 인물을 기념하는 우표를 만들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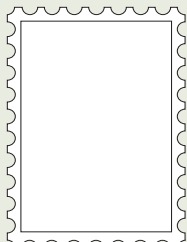
안경신(1888년~미상) :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같은 해 대한 애국 부인회를 조직했고, 이후 상하이로 망명해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교섭하는 등 항일 운동을 펼쳤습니다. 외교보다는 무력을 동원한 독립운동에 적극적이었으며, 1920년에 미국의 원 동양 시찰단 방문에 맞춰 광복군 결사대와 함께 평양도청과 평양경찰서에 폭탄을 던지는 의거를 일으켜 일제의 만행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우정사업본부, 2019)



김마리아(1892년~1944년) : 정동에 있는 정신여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일본 유학을 한 뒤, 1919년에 귀국하여 전국을 돌며 독립 사상을 복돋웠습니다. 여성 항일 운동을 위해 대한 애국 부인회를 조직하였고, 상하이로 망명해 대한 애국 부인회 회장으로 활약했습니다. 1923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1928년에 근화회를 조직한 뒤, 한인의 애국심을 일깨우고 서방 국가에 일제의 만행을 알리고자 애썼습니다. (©우정사업본부, 2019)



권기옥(1901년~1988년) : 평양에서 3·1 운동에 참여하였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군자금 모금 활동에 나섰으며, 평양청년회 여자 전도대를 조직해서 독립운동을 위한 비밀 공작을 펼쳤습니다. 1920년 9월에 일본 경찰을 피해 상하이로 탈출한 뒤, 임시 정부에서 이승만, 안창호 등과 함께 활동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 중국 공군에서 십여 년간 복무하며 항일 활동을 이어 갔습니다. (©우정사업본부, 2019)



수업에 도움이 되는 팁 ▶▶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자료가 최근에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조국 독립에 헌신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억하고자, 여성 독립운동가 네 명을 선정해 기념우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2. 1930년대 어느 하루를 상상하며 역사 일기를 써 봅시다.

- 1) 그 시대의 중요한 특징들을 떠올려 봅시다.
- 2) 그 시대의 인물이 되어, 시대의 특징이 드러나게 일기 형식으로 글을 씁니다.

내가 당시에 태어났다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시대의 삶을 상상해 보고 일기로 써 봅시다.

년 월 일

제목 :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15 horizontal blue wavy lines for writing.



10차시 : 나만의 '말모이 사전' 만들기

1. '나만의 말모이 사전'을 만들어 봅니다.

- 1) 8절 도화지를 활용해 미니북을 만듭니다.
- 2) '나만의 말모이 사전'에 이름을 붙여 표지를 꾸며 봅니다.
- 3) 1차시 활동, 4~5차시 활동에서 찾은 낱말들을 활용하여 사전을 만들어 봅니다.
- 4) 사전 마지막 장은 아래 칼럼을 참고해 '내가 사랑한 우리말'을 하나씩 정한 다음 글과 그림으로 장식합니다.

말모이 100년, 내가 사랑한 우리말

첼리스트 장한나

우리!

© 장한나, 2019

우리말에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쓴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가족, 우리 집……. 반면에 내가 열 살 때부터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나의 엄마, 나의 아빠, 나의 가족 등 '나의(my)'라는 표현을 늘 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일상에서 나에게 가장 큰 문화적 차이로 다가온 단어다. 그만큼 '우리'에는 우리말의 정서와 정(情)이 더 배어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나는 첼리스트로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첼리스트로서 내가 하는 연주는 분명 '나의 연주'이기 때문이다. 100% 내가 완성하고 책임지며 그 누구도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못하는 순수한 나만의 연주, 나만의 음악적 목소리다.

이런 연주를 하던 내가 요즘 진정한 '우리' 음악의 위대함과 재미에 푹 빠져 있다. 오케스트라에는 100명에 가까운 '나의 연주'를 하는 연주자가 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소리를 만들고, 감당하고, 책임진다. 지휘자로서 나의 역할은 그 100가지 '나의 소리'를 하나의 '우리 소리'로 빚어 나가는 일이다.

[중략]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와 꿈을 담은 한마디는 '우리'다. 우리 음악에서 더 나아가 우리 세상, 우리 인류, 우리 지구가 되는 꿈을 가져 본다.

〈말모이 100년, 내가 사랑한 우리말〉[11] (조선일보, 2019년 12월 5일)

수업에 도움이 되는 팁 ▶▶ <내가 사랑한 우리말> 칼럼은 어린이들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BTS를 포함한 유명 인사들이 특히 아끼는 '우리말'이 하나씩 있다는 칼럼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한다면 즐겁게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긴 글이나 완성도 있는 그림이 아니어도 좋으니 자신이 선택한 말이 왜 좋은지, 그와 관련된 숨은 이야기가 있는지 표현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작품 의도를 파악하고 실제로 구현해 보는 마지막 활동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 관련 자료 및 답사지 ●

관련 자료

- 1차시_ 영화 <말모이> 예고편(2018) <https://youtu.be/lHjy3OK2eqk>
- 4차시_ NATV 국회방송 <한국의 정신> 71회 주시경 <https://youtu.be/uztgjrn7xco>
 _ EBS <역사가 술술> 우리글을 지킨 한글 학자, 주시경 https://youtu.be/_AF2irPdLzA
 _ MBC <박성훈, 주시경을 기억하여 기록하다> <https://youtu.be/1oRcnRgxHZA>
- 5차시_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공익 광고'(2018)
<http://www.kocsc.or.kr/cop/bbs/selectBoardArticle.do#LINK>
 _ <조선일보> 세계화 시대, 외래어·외국어 사용 이대로 괜찮습니까?(2018년 10월 9일)
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18/09/20/2018092012797.html
- 6차시_ EBS <지식채널e> 말모이 대작전 <https://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1177818>
 _ MBC <신비한TV 서프라이즈> 1945년 9월 8일, 13년의 노력 끝에 되찾은 것은? <https://youtu.be/1AXJXlrcano>
- 8차시_ <동아일보> '누구나 독립운동가 될 수 있어' 광복군 암호 만든 김우전 선생 마지막 인터뷰(2019년 3월 1일)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301/94352426/1>
 _ <동아일보> 지시나 가르침 없이, '위대한 보통사람들'의 자발적 만세 운동(2018년 11월 3일)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1103/92709690/1>
- 10차시_ <조선일보> 말모이 100년, 내가 사랑한 우리말 <https://malmoi100.chosun.com>

관련 도서

- 《이윤재》, 박용규, 역사공간, 2013.
- 《조선어 학회 항일 투쟁사》, 박용규, 형설출판, 2012.
- 《주시경》, 김학선, 파랑새, 2019(개정판).
- 《한글 만세, 주시경과 그의 제자들》, 이상각, 유리창, 2013.

관련 답사지

- 서울시 용산구 문화역서울284 : 1945년 9월, 경성역 창고에서 우연히 말모이 원고가 발견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발견 덕분에 《조선말 큰 사전》을 펴낼 수 있었지요. 경성역은 1947년에 서울역으로 이름을 바꾸고 오십 년 넘게 서울의 중앙역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2003년부터 복원 작업을 했으며, 지금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